"중앙부처 소통 시민 불편 등 현안 해결 최선"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국토부장관 만나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안 등 협조 요청

이행숙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을 건의하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지난 10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들을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행숙 정무부시장은 원희룡 장관에게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개발제한구역(GB) 제도개선, 검단신도시 물류센터 관련 사안들을 건의했다.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의 경우 최종 노선 선정 시 경제성 및 정책적 타당성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의 경우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에 따른 최적노선을 선정해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경인고속도로는 전국에서 건설유지비 회수율이 가장 높고 이미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만큼 통행료를 무료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개발제한구역(GB)의 경우 해제 가능 총량 추가 확보와 군부대 이전 등 국책사업의 해제 총량 예외 반영 및 GB 대체 지정 권한위임 확대와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검단신도시 물류센터(불로유통3부지)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만큼 우선 주민들과의 민원을 해소한 후 영업 인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행숙 정무부시장은 건의사항과는 별도로 원희룡 장관께 인천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정부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건설사와 관리 감독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하고 신속한 사후 대책을 요청했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에 대한 지역 현안들이 많아 장관님을 직접 찾아뵙고 건의를 드렸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 정치권과 적극 소통하고 건의해 각종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신숙 기자 pss@hyundaiilbo.com

"마니산 한겨레 얼 체험공원 놀러오세요"

단군놀이터·소나무 산책길 치유의 숲 등 다양한 공간 마니광장서 수공예품 판매·공연 즐길거리 제공

한겨레 얼 체험공원이 다양한 공간으로 시민을 맞는다.사진은 참성단 재현 조형물. (사진: 인천 강화군 제공)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를 이야기할 때 반만년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고 이야기 하곤 한다. 이는 우리 시조가 단군이고 단군 연호를 쓰면서 갖게 되는 자부심 때문이다.

단군이 직접 단을 쌓으시고 하늘에 제를 올린 마니산 참성단은 남한 유일의 단군 유적으로 남한 유일의 단군 유적으로서 매년 개천대제를 봉행하고 성화를 채화하는 민족의 영산이자 성지이다. 마니산은 인천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강화의 넓은 평야와 산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사계절 내내 등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인기 산행지다.

지금까지의 마니산은 서울에서 가깝고 가볍게 산행하기 좋은 산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제 마니산을 산행만이 아닌 어린이 역사 탐방, 체험여행 등 가족, 연인들이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변모하고 있다.

2017년부터 시작한 한겨레 얼 체험공원 조성사업으로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단군놀이터', 참성단 재현 조형물이 있는 '개천마당', 한민족의 통합과 화합을 염원하는 '천부인 광장', 1966년 제30회 전국체전부터 성화가 채화된 것을 기념을 위한 '꺼지지 않는 불꽃 광장', 1km 소나무 숲 산책길을 따라 힐링할 수 있는 '치유의 숲', 단군과 마니산을 테마로 한 전시 체험시설인 '한겨레 얼 체험관'을 조성했다.

특히, 한겨레 얼 체험관은 단군과 마니산을 모티브로 최신 전시기술을 적용했다. 제1전시실에 들어서면 바닥에 파도치는 영상을 따라 현대부터 고조선까지 시대를 거슬러 과거로 올라가며 참성단의 제천의례를 모습을 소개한다. 제2전시실에는 단군신화를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과 곰과 호랑이가 움직이는 영상으로 재미있게 연출되어 있으며, 별관 강화도 전설이야기(삼랑성 단군과 세아들, 손돌목 전설 등)로 아이들이 재미있게 역사를 접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제3전시실은 3면을 활용하여 강화도 역사, 강화 전경을 주제로 영상이 상영되며 사람동작에 따라 반응하는 실감형 콘텐츠가 포함되어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2023년 웰니스·의료 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인천지역에 마니산이 선정됨에 따라 치유의 숲에서 '숲 해설사와 함께하는 숲 체험프로그램'을 4월부터 매주 토요일 2회씩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6월과 10월에는 공연 및 각종 행사를 위해 조성한 '마니광장'에서 강화지역 예술가들의 수공예품 및 농특산물 판매, 체험부스와 강화지역 문화예술인의 공연이 어우러지는 플리마켓을 열어 가족단위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종욱 기자 kjd@hyundaiilbo.com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발의

김대영 인천시의원

김대영 시의원

최근 인천지역에서 주택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지원과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민·비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이 12일 열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인천시전세피해지원센터 자료에 의하면 최근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주택전세사기 피해자의 63%가 40대 이하로, 사회경험이 짧은 사회초년생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데 큰 족쇄가 되기에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고, 특히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유형은 제도의 허점과 허위사실을 이용한 지능적인 범죄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에 전세사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김대영 의원은 지속적인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비롯해 인천시와 국토부에 적극적인 대처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김대영 의원은 "이번 촉구 결의안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통과되어야 보수·진보, 당리당략없이 시민의 안녕을 위해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왜 의원들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밥을 먹고 사는지 등 이번에 우리가 시민들에게 증명하자"고 말했다.

김종욱 기자 kjd@hyundaiilbo.com

인천 중구 선수단 격려금 전달식
중구체육회가 소년체전 출전 선수단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사진: 인천 중구체육회 제공)

"갈고 닦은 기량 발휘 지역 명예 높여달라"

중구체육회, 소년체전 출전 선수단에 격려금

인천 중구체육회(회장 장관훈)가 지난 10일 중구 제1청사 2층 상황실에서 제52회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관내 선수단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대한민국 체육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소년들이 부상없이 기량을 발휘해 더 높은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됐다.

장관훈 중구체육회장은 인천이 최우선임을 당부하면서 "선수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며 "열정을 가지고 즐기며 경기에 임한다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니, 우리 선수들이 지금까지 갈고 닦은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 본인과 지역의 명예를 높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김정헌 중구청장도 "지역 체육인들의 입지를 높여 줄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을 지켜보며 항상 응원할 것"이라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번 소년체전은 2023년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울산에서 개최되며, 울산종합운동장 등 46개의 경기장에서 36개의 종목이 펼쳐지고, 약 18,000여 명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참가할 예정이다.

인천 중구에서는 신광초등학교 외 9개 학교에서 56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이현희 기자 lwh@hyundaiilbo.com

동구노인문화센터, 어버이날 기념 성료

카네이션 전달·유공자 표창 등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 송현성결교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인천 동구노인문화센터(센터장 박미영)에서는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최근 동구문화체육센터에서 어르신 400여명을 모신 가운데 '제51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식전행사에서는 어버이날 행사를 축하하는 다양한 공연이 진행됐으며, 본 행사는 김찬진 동구청장 등 여러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유공자 표창이 진행됐다. 기념식 후에는 '나나리 국악단'에서 준비한 퓨전 국악 공연을 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제51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는 밝고 행복한 어르신 이미지를 구현한 한바탕 웃음과 활기가 넘쳐난 행사로, 어르신 가슴에 달린 카네이션의 의미처럼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어르신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뜻깊은 날이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행사로 경로효친의 전통미덕 사상이 널리 퍼지는 데 기여했기를 바란다"며 "효와 사랑이 넘치는 동구가 되도록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관련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동구노인문화센터장은 "어버이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다양한 여가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본 동구노인문화센터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 많은 관심 바란다.

이현희 기자 lwh@hyundaiilbo.com

서구, 집중호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급경사지·옹벽 등

인천 서구가 우기와 집중호우를 대비해 공동주택 내 급경사지와 옹벽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공동주택 15곳으로 서구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지반침하, 변형 등 공동주택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

구는 △붕괴나 낙석 등 위험요인 정비 상태, △비탈면 표면 보호 시설 이상 유무, △구조물 균열 및 배수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서구 주택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안전 점검으로 공동주택 내 위험요소를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용희 기자 kangyh0240@naver.com

인천경제청-송도소방서, 합동 소방훈련

화재 발생 시 대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 송도소방서와 함께 지난 10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올해 상반기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경제청 및 입주기관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소방훈련은 △화재 발생 시 대피, △초기 화재 대응, △송도소방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소화기 사용 요령 교육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소방훈련에는 펌프차, 고가 사다리차, 물탱크 차량 등 3대와 소방관들이 참여했으며 실제 상황을 방불케 했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청사 내 직원 및 입주 기업·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화재 대피 및 대응 교육을 실시,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변주영 인천경제청 차장은 "소방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훈련이 화재 등 재난상황으로부터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신숙 기자 pss@hyundaiilbo.com

편집=정구정 기자 jdk@